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2회차

2012년 11월 18일 (제 2회차)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감독 확인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필기구는 배부한 검정색 볼펜이나 개인 연필 가운데 한가지 필기구로만 계속 사용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0'점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여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9.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0.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공 통 문 항

<가>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초대를 받았을 때 우선 그 주인과 거기에 나타날 손님을 미루어 보아 그 좌석에서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한다. 좋은 이야기가 나올 법한 곳이면 아무리 바쁜 때라도 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비록 성찬(盛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가기도 한다. 피난 시절에 음식을 따라다니던 것은 슬픈 기억의 하나다. 나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추운 날 먼 길을 간 일이 있고, 밤을 새우는 것도 예사였다. 차 주전자에 물이 끓고 방이 더우면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인 것 같았다. 한밤중에 구워먹을 인절미라도 있으면 방이 어두워 손을 데더라도 거기서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눈 오는 날 다리 저는 당나귀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림이 있다. 만나서 즐거운 것은 청담(淸談)이리라. 말없이 나가서 술을 받아 오는 그 집 부인을 상상한들 어떠리.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약간 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정직을 위한 정직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영국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고, 죄 있는 거짓말을 까만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칠색이 영롱한 무지갯빛 거짓말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노라면 자연히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고, 이해관계 없이 남의 험담(險談)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다.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답답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내가 외국에서 가장 괴롭던 것은 남의 험담을 하지 못하던 것이다.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위선자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산다. 그리고 모든 경험은 이야기로 되어 버린다. 아무리 슬픈 현실도, 아픈 고생도, 애끓는 이별도 남에게는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당사자들에게도 한 날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날의 일기도, 훗날의 전기도, 치열했던 전쟁도, 유구한 역사도 다 이야기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백이다. 검사, 배심원, 판사에게 유죄임을 납득시키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유도 심문을 통해서라도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도록 훈련받는다. 이것이 전적으로 합법이라는 것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사관들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죄 없는 사람을 유도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경찰 심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과실이지만, 대다수의 수사관들, 검사들, 판사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조슈아 마퀴스는 말한다. “누군가 유도에 따라 거짓으로 자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토당토않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트윙키 변론*이다. 이보다 더한 사이버 과학은 없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한다. 자신이 무죄인데도 죄를 자백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확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도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수감생활을 하다가 논란의 여지 없이 무죄가 증명된 사람들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그들 중 저지른 적도 없는 범죄를 자백했던 사람이 15~25퍼센트에 이르렀다. 사회학자들과 범죄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했다. 왜 표적이 된 피의자는 심문자에게 화를 내지 않는가? 왜 피의자는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에 대한 심문자의 설명을 후련함마저 느끼면서 납득하고, 다음날 뒤늦게 후회하는가? 죄 없는 피의자가 유죄를 부인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그는 스스로 거짓 자백의 당사자가 되는가? 그의 거짓 자백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무엇인가?

* 트윙키 변론(Twinkie defense):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무원이 불만을 품고 시장과 자신의 상사를 쏘아 죽인 사건에서, 그가 트윙키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 데서 생긴 용어.

<다> 진실은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완성된 상태로 환하게 드러내는 주체 속에서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이중창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고백하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으되 그것이 불완전하고 맹목적인 까닭에, 진실은 수합하여 기록하는 자에게서 완성될 수 있다. 이 모호한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역할이다. 고백으로 폭로된 사실은 고백 내용의 판독과 짝 지워져야 한다. 듣는 자는 단순히 용서하는 스승,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석방하는 재판관이 아닐 것이다. 그는 진실의 주인일 것이다. 그의 역할은 해석의 그것이다.

동시에 고백은 말하는 주체와 발화되는 문장의 주어가 합치되는 담론의 의식(儀式)이다. 그것은 또한 권력 관계 안에서 전개되는 의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백자는 최소한 잠재적으로라도 상대가 없다면 고백하지 않는 법이며, 그 상대는 단순히 질문하고 답을 듣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요청하고 강요하고 평가함과 동시에 재판하고 벌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판정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백은, 언어로 표명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의 외적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재적 변화를 초래하는 의식이다. 이 언표(言表) 행위를 통해 고백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고, 속죄되고, 영혼이 정화되고, 과오의 짐을 벗으며, 해방되고, 구원을 약속받는다.

오랫동안 고백은 고해성사의 관행 속에 단단히 갇혀 있었다. 하지만 18세기의 교육학, 19세기의 의학이 출현한 이후에는 점차로 의례적이고 배타적 특성을 벗어나 확산되어 왔으며, 다양한 일련의 모든 관계 — 자녀와 부모, 학생과 교사, 환자와 정신과의사, 비행을 저지르는 자와 감식인 — 에서 이용되었다. 고백의 동기 및 기대효과가 다양해진 것처럼, 고백 형식 또한 심문, 진찰, 자전적 이야기, 편지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고백이라는 형식 또는 고백이라는 제도가 고백해야 할 내면 또는 ‘진정한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고백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다. 감추어야 할 것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의무가 감추어야 할 것을 또는 ‘내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인 것이다. 일단 성립한 고백이라는 제도 속에서 처음으로 감추어야 할 일이 생기며, 나아가 그것이 제도라는 사실이 의식되지 않는 것이다. 정신분석이라는 고백의 기술이 심층의식을 실재화한 것처럼, 고백이라는 행위에 앞서 고백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1. <가>의 ‘하얀 거짓말’과 <나>의 ‘거짓 자백’의 ‘거짓’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 1>과 <표 2>를 활용하여 밝히고, <다>의 ‘고백’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 친 물음에 답하시오. (1,000±100자)

<표 1> 불치병 환자 본인 통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일반인 100명 대상)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불치병 환자의 본인 통보에 대해	52	41	7
당신이 불치병 환자라면	84	12	4

<표 2> ‘잘못에 대한 질문 반복’에 따른 피실험자 응답 결과

단위: 명(%)

진술내용	통제집단 (반복없음)	실험집단 (반복1)	실험집단 (반복2)	실험집단 (반복3)
예	1(2)	2(4)	5(10)	12(24)
아니요	42(84)	45(90)	37(74)	33(66)
모름	7(14)	3(6)	8(16)	5(10)

※ <표 2>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인지실험 결과이다. 피실험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 컴퓨터 오류를 경험한다. 그러나 컴퓨터 오류는 사전 조작된 것으로 피실험자들과는 무관하다. 오류가 발생한 후, 피실험자들은 그들 자신이 컴퓨터 오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피실험자들은 응답한 후, 동일 질문을 반복해서 3회 더 받는다.

계 열 문 항

<가> ‘게슈탈트(gestalt)’란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할 때 떠오르는 일정한 패턴을 지닌 부분의 집합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의 이름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범주를 찾아내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본능적 반응을 ‘게슈탈트 디폴트(gestalt default)’라고 부른다.

편집용 프로그램인 페이지메이커(Pagemaker)에는 눈의 게슈탈트 메커니즘처럼 작동하는 매력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스냅 투 가이드라인(snap-to guidelines)’이 그것이다. 이 기능은 원고를 정렬하고 싶을 때, 처음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동 정렬이 가능하다. ‘스냅 투’ 기능이 인식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포착해서 설정된 가이드라인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게슈탈트 디폴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발견된다. 게슈탈트 디폴트는 우리가 관찰한 것을 포착해서, 과거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밀어 넣는다. 우리는 아는 것을 좋아하고, 모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곧바로 아는 것으로 재해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기계적인 반응은 무척 유용하고 효과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페이지메이커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스냅 투 기능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원고를 정렬할 수 있다. 그러나 게슈탈트 디폴트는 우리에게 강제로 설정된 프로그램이다. 그렇다고 무시해 버리면 게슈탈트 디폴트는 우리의 반응 능력까지 억누른다. 따라서 예술 행위를 위해서는 게슈탈트 디폴트를 억제하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게슈탈트 디폴트를 지배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가꾸어주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우리의 기계적인 판단을 의심하거나 억제하여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게슈탈트 디폴트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다면 게슈탈트 디폴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나> 대한제국기의 과학담론에는 위기감이 팽배해 가고 있던 당시 사회조건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생존경쟁의 논리를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쟁을 위한 대응의 한 형태로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학은 ‘공리공론도 아니며 상상도 아닌’ 실제의 학문, 즉 실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던 당시 지식인들은 특히 위생을 통한 일상생활의 과학화, 그리고 과학응용으로서 동식물의 개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소위 위생이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시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들의 입장에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은 기본이었다. 이들에게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소화작용, 순환작용, 호흡작용, 정신작용, 배설작용을 하는’ 존재였다. ‘자양분이 풍부한 식물을 섭취하고 각 음식물의 종류와 먹는 방법에 주의하며,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여 깨끗한 혈액을 생성하고 항상 적당한 운동을 함으로써 사지를 활발케 하는 것’은 위생의 일차적 요건이었다.

그러나 위생의 문제가 인간의 육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신체위생은 바로 정신위생을 의미했다. 비록 ‘육체는 건강하나 확고한 국민적 또는 사회적 정신을 배양치 아니하면’ 육체적 위생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신위생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극기심을 기르고, 학문을 연구하고, 위인의 전기를 열심히 탐독하고, 신앙심을 기르고 심리학, 윤리학, 철학 등 과학을 연마하여 정신적인 소양을 풍부히 함으로써 신체위생과 정신위생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언급되고 있던 위생의 문제는 한국사회에 대해 가난과 질병의 이미지를 부과하고 한국인의 무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위생문제를 통하여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열등한 한국사회’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우등한 서구사회’를 대비시키고 있었다.

<다> 백인 문명의 확산이 준 심리적 영향은 유물론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컸다. 서양 문명의 이러한 범세계적인 문화 전파(cultural diffusion)는 과거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을 만큼 서구인들을 보호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그것은 우리(이하 서양을 가리킴) 문화에 당당한 보편성을 부여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오랫동안 멈추어왔으며, 단지 이 보편성을 필연적이며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명에서 인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가 경제적 경쟁에 있다는 점을 모든 문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문명 안에서 형성되어 임상학에 기록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어린이들 일반의 심리 혹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어린 시절 일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은 우리의 윤리학이나 가족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는 지방의 행동 방식을 바로 행동 일반과 동일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습관을 인간성 바로 그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서 방어하는데, 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동기의 필연성 때문이다.

현대인은 요즘 이 명제를 자기 사상과 실제 행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 명제가 미개인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기원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구분법 중의 하나, 즉 '내 자신의' 폐쇄된 집단과 국외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생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모든 미개 부족들은 이와 같은 국외자라는 범주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들 국외자는 자기 민족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도덕률 조항에서도 국외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직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배제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부족을 지칭하는 주니(Zuñi), 데네(Déné), 키오와(Kiowa)와 같은 명칭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인 동시에 그들의 언어 중에서 자기 자신들, 즉 '인간'을 의미하는 유일한 말이기도 하다. 이 폐쇄된 집단 바깥에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각 부족들이 그 기술과 물질적 발명품을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는 행동을 통하여 발전시킨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2. <다>의 밑줄 친 부분을 이용하여 <나>의 상황이 작동된 이유를 설명하고, <가>, <나>, <다>의 핵심논지를 이용하여 <보기>를 분석하시오. (1,000±100자)

<보기>

외국인을 보는 방식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백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좋다. 서구형 얼굴인가, 키가 큰가, 영어를 쓰는가의 여부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지하철을 타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옆에 앉기를 꺼려하며, 말을 걸어와도 기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연 습 지